

“지켜낸 조국 기억하겠다”...코리아 우라!

〈대한민국만세〉



광주 고려인마을은 지난 1일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7주년 3·1절과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 만세운동 103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만세 행진 후 흥법도공원에서 이어진 기념식. <광주 고려인마을 제공>

광주 고려인마을 ‘107주년 3·1절’ 행사

‘배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 500여명 참석 태극기 물결 돌리길...독립운동 현장 재현 연해주 고려인 만세운동 103주년도 기려

“107년 전 만세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절박함이었다면, 오늘의 외침은 지켜낸 나라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배앗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간절한 외침이 한 세기를 넘어 선조들의 회상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메아리로 재현됐다.

2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마을 일원에서 ‘배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107주년 3·1절과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 만세운동 10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박군택 국회의원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장,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광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검정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차려

입고 태극기를 손에 쥔 채 월곡고려인문화관에 서부터 흥법도공원까지 행진했다. 해당 거리는 평소 아이들이 뛰놀고 관광객이 거닐던 평범한 마을 돌레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항일 독립운동의 현장이 됐다.

행진 도중 일본 순사로 분장한 마을 청년들이 행렬과 대치하자 만세의 함성은 더욱 거세졌다. 송주영 고려인마을주민관광청 해설사의 선창에 맞춰 터져 나온 “대한민국 만세!”, “우라 코리아!” 등의 외침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독립의 의지를 되새기는 의식과도 같다는 게 고려인마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세 행진 후 흥법도공원에서 이어진 기념식은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례,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추모공연과 추모시 발표, 3·1절 노래 제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고려인마을에서 활동하는 김블라디미르 시인은 “107년 전 울려 퍼진 만세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절박함이었다면, 오늘의 만세는 지켜낸 나라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 고초를 겪은 고려인 선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동포들이 한국에서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어 감사하고 벅하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남경오 순천 금당고 총동문회장 모교에 컵·팀블러 세척기 7대 기증



순천 금당고등학교는 2일 “남경오(사진) 총동문회장이 후배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식사환경 조성을 위해 컵·팀블러 자동세척기 7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자동세척기는 1천700만원 상당으로, 재학생들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교내 곳곳에 설치됐다.

남경오 총동문회장은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건강을 위해 작은 실천에 나섰을 뿐”이라며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오는 4월 열리는 개교 50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금당고 관계자는 “학생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맑은 물을 마시고 학업에 정진해 최고의 명품 고등학교로 비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광주소방학교, 신입 소방관 101명 졸업

광주시 소방학교는 지난날 27일 교육훈련관사에서 제104-105기 신입교육 소방사 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입 소방관에게 졸업증과 표창장이 수여됐다.

졸업생은 광주 30명, 전북 36명, 창원 26명 등 총 10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올해 2월27일까지 화재 진압, 구조·구급 실무 등 소방공무원의 기본 직무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실화재훈련, 가상 환경을 활용한 지휘훈련, 기초 수상 인명구조 등의 교육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앞으로 광주·전북·창원 지역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돼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조현문 광주소방학교장은 “국민에 대한 헌신과 명예,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짚어질 리더 탄생”

켄텍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

개교 첫 정규학사 졸업생 30명 배출 27명 동대학원 진학 연구활동 매진

“켄텍의 첫 졸업생 배출은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짚어질 리더들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로 한국이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필요한 핵심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된 날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규 학사 졸업생을 배출했다. 켄텍은 지난날 2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6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박사 1명, 석사 10명, 1기 정규 학사 졸업생 3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 수여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정부 제2차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김동철 이사장, 윤의준 초대 총장, 박진호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축사를 맡은 하정우 수석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급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 확대 등 정책

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졸업한 1기 학사 졸업생 30명 가운데 28명은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이 중 27명은 켄텍 대학원에 진학해 에너지 분야 연구를 이어간다.

다른 1명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나머지 2명은 진로를 고민 중이다. 앞서 지난해 조기 졸업한 학생 5명 중에서도 3명이 켄텍 대학원에 진학한 바 있다.

첫 정규 졸업을 수석으로 마친 김수홍 학생(석박사통합과정 진학)은 “켄텍 대학원에서 연구 역량을 강화해 학계·산업계·연구계를 모두 아우르는 교수형 인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지역과 국가,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태어난 켄텍이 첫 정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쓰는 날”이라며 “졸업생들이 학부에서 쌓아온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욱기자

광주 남구가족센터 ‘고교학점제 진로캠프’ 성료

광주 남구가족센터는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추진한 ‘2026년 열정스튜디오 고교학점제 진로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주배경청소년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진로캠프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바탕으로 사명을 설정하고 고교학점제에 맞춘 학업·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핵심 가치 탐색과 사명서 작성 등 진로 로드맵 초안 설계 ▲미래 설계 활동과 고교학점제 이해 교육을 통한 과목 선택 전략 구체화 ▲가족과 함께하는 비전 선포식 ▲구체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의 특강 ‘꿈꾸는 청소년이 되라’ 등이 진행됐다.

장미영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발견하고 실현 가능한 진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 기회의 격차를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전남도·제주권 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실천 협력”

전남도는 “최근 이틀간 제주권 호남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난해 고향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2026년에도 고향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협력을 다짐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재제주호남향우회와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가 50년 이상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올해 활동 계획과 사업 승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는 지난날 27일 운영위원회를, 재제주호남향우회는 28일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했다.

전남도는 2개 행사에 참석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도정설명회를 열고 향우들과 교류했다. 향우회에서 각각 3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 전남도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



당 현액증서’를 수여했다. 장은술 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장과 장정환 재제주호남향우회장은 “전남도민회는 고향과 제주를 잇는 든든한 다리이자 전남 발전을 응원하는 동반자”라며 “전남도와 협력해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정기자

동강대, RISE 사업 우수 성과 공유 워크숍

동강대가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1차년도 성과를 공유했다.

2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여수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

특히 동강대는 오는 4월23일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나누며 지역 명문 사학으로써 재도약을 다짐했다.

동강대는 교육부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2025년 RISE 사업’에서 ▲인재 SKILL UP ▲기업 VALUE UP ▲지역사회 GROW UP ▲대학 IN NO UP 등 4개 프로젝트 11개 단위과제에 선정됐다.

이는 동강대가 신청한 11개 단위과제 100% 선정으로 사업 기획력과 수행 역량을 입증한



결과다. 워크숍에서 동강대는 RISE 4개 프로젝트 11개 단위과제의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더불어 AI미래전략기획실 주제로 2026학년도 업무 및 중장기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이민숙 총장은 “동강대는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앞세워 다시 한번 동강대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박선욱기자

김동기 제18대 광주대 총동창회장 취임

광주대학교는 2일 “제18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김동기(사진 앞줄 왼쪽서 네 번째) (우하이누리그룹 대표이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광주대는 최근 교내 호심관에서 김동진 총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박철홍 골드클래스 보광그룹 회장, 광주 4개 대학 총동창회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18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동기 신입회장은 “젊은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형 총동창회를 조성하고, 모교와 총동창회가 동반 성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여 동문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고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결과로 증



명하는 회장이 되겠다”면서 “대학 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동문 네트워크를 사업, 취업, 협력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총장은 “총동창회가 졸업생들의 취·창업 지원, 해외 동문과의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교 발전과 대학 동문들의 끈끈한 유대 강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욱기자

인사

광주시 ◇3급 승진 ▲시민소통과 황인채 ▲총무과 소진호

◇4급 승진 ▲기후대기정책과 김영규 ▲미래산업총괄관 박용범 ▲경제정책과 장인숙 ▲군공항건설단 김경수 ▲도로과 유홍석

◇6급 승진 ▲신활력총괄관 김영하 ▲인권평화과 김혜숙 ▲인사정책관 심현석 ▲노동일자리정책관 장종근 ▲안전정책관 송여준 ▲대중교통과 박우성 ▲에너지산업과 박은수 ▲농업동물정책과 박지윤 ▲공공보건의료과 정영훈 ▲도시계획과 김용주 ▲도시공원과 유은열 ▲회계과 장재식 ▲토지정보과 이수진 ▲시립미술관 홍윤리 ▲총무과 박해진

부음

▲방준환(전 전남도 대변인실 보도지원팀장)씨 별세, 박윤희(광주 예덴병원 간호국장)씨 배우자상, 방세영·방세현씨 부친상=발인 3일 오전 8시30분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401호실 (062-606-4000).

▲김영일씨 별세, 김재환(광주 북구청 홍보실장)씨 부친상=발인 4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401호 (062-960-4444).

▲최유범(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씨 별세=발인 4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 서구 매일동 VIP장례타운 VIP 501호 (062-521-4444).